

2013 무안군의회 의원 및 직원

국외연수보고서



무안군의회
(의회사무과)

2013 무안군의회 국외연수 보고서

I 연수개요

1. 개 요

- 연수기간 : 2013. 3. 7 ~ 3. 11(4박5일)
- 연수장소 : 대만, 중국(상해)
- 연수대상 : 11명(의원7, 직원4)

2. 연수내용

- 2013년 무안갯벌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만과 상해의 해양관광 자원 벤치마킹
- 특색 있는 볼거리와 먹을거리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무안의 5일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시장 견학
- 대만과 상해의 주요 관광자원 견학을 통한 우리군 관광자원 활용방안 모색

3. 연수일정

- 1일차 : 무안국제공항출발(12:10) → 상해도착(13:05)
→ 현지시찰
- 2~4일차 : 현지시찰 및 기관방문, 대만·상해간 이동
- 5일차 : 상해출발(08:50) → 무안국제공항도착(11:20)

□ 연수세부일정

일 자	지 역	방문장소	일정 및 업무내용
제1일 3/7 (목)	무 안 상 해	-	○ 무안출발(12:10) → 상해도착(13:05)
		황포강유람선 탑승 등	○ 상해의 황포강 유람선 탑승을 통한 영산강 역사 문화체험 전통벚길 조성 사업 등에 대한 벤치마킹
제2일 3/8 (금)	상 해	상해해양대학교 해양박물관	○ 중국 공립 종합대학인 상해해양대학교 부속시설인 해양박물관을 방문하여 무안갯벌센터의 운영 상황과 비교 분석 * 현지관계자와 미팅
		남 경 로	○ 중국 현대화의 상징인 남경로 방문을 통해 신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무안 남악의 발전 방안 모색
	-	○ 상해출발(15:55) → 대만도착(17:40)	
	대 만	용 산 사	○ 종교체험이 가능한 용산사를 방문하여 올해부터 불교계와의 협약을 통해 개최되는 무안연꽃축제의 성공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모색
쓰린 야시장		○ 특색 있는 볼거리와 먹을거리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대만의 야시장을 방문해 우리군 시장의 발전 방안 모색	
제3일 3/9 (토)	대 만	잉 겨 도자기박물관	○ 잉겨 도자기박물관 방문하여 관람뿐만 아니라 체험도 가능한 전시관 조성 모색
		야류해양 국립공원	○ 야류 해양 국립공원을 방문하여 2013 무안갯벌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발전 방안 모색
		타이페이 101 타워	○ 도심의 특색있는 건물을 통한 남악신도시의 활성화 방안 모색
제4일 3/10 (일)	대 만	국립고궁 박 물 관	○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립고궁 박물관을 방문, 주요 전시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군 미술관 등 전시 시설에 대한 발전 방안 모색
		충 렬 사	○ 충렬사의 근위대 교대식을 통해 주요 행사 등에 있어 무안을 알릴 수 있는 다채로운 식전행사 개발 방안을 모색
	상 해	서 문 정 거 리	○ 대만의 명동인 서문정 거리 방문을 통한 남악의 발전 방안 모색
		-	○ 대만출발(18:40) → 상해도착(20:25)
제5일 3/11 (월)	상 해 무 안	새벽시장 등	○ 새벽시장을 방문 중국의 농수축산물 유통 및 판매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그 장점을 무안군의 농수축산물 유통 등에 접목시킬 방안을 모색
		-	○ 상해출발(08:50) → 무안도착(11:20)

□ 2013년 무안군의회 국외연수 대상자 명단

연 번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1	의 장		임덕수 (Deogsu. Lim)	
2	부의장		정길수 (Gilsu. Jeong)	
3	위원장		정찬수 (Chansoo. Jung)	
4	위원장		김천성 (Chunsung. Kim)	
5	위원장		정철주 (Cholju. Jung)	
6	의 원		김 산 (San. Kim)	
7	의 원		최옥현 (Ohkhyun. Choi)	
8	의회사무과장	행정5	임이수 (Yisoo. Lim)	
9	전문위원	별정6	이덕인 (Dukin. Lee)	
10	직 원	행정8	한영재 (Yeongjae. Han)	
11	직 원		김 속 (Suk. Kim)	

II

연수국가(도시) 소개

1. 상 해(중국)



상하이시는 창강 하구에 있는 중국 최대 도시로 정식 명칭은 상하이직할시, 간칭은 호이며 베이징, 톈진, 충칭과 함께 4대 중앙직할시로 중국역사문화명성(2차, 1986)으로 지정되어 있다. 시정부는

황푸구에 소재하며 행정구획은 2009년 난후이구를 포동신구에 포함시켜 현재는 17개 구와 1개 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하이시의 면적은 6,219km²로 전국토의 0.06%를 차지하며 남북으로는 약 120km, 동서로는 약 100km로 이중 도심 면적은 5,299.29km², 현 지역의 면적은 1,041.21km²이다. 2010년 10월 실시된 제6차 전국인구조사에 따르면 상하이시(上海市)의 총인구는 2,301.91만 명으로 총인구의 1.72%를 차지하여 성급 행정구 중 2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39개 소수민족 및 미식별 민족이 약 5.3만으로 전체 인구의 0.4%를 차지하고 있다.

상하이시의 평균 해발고도는 4m 내외이며 경내에는 3개 섬이 있다. 상하이시는 북아열대계풍기후에 속하여 기후가 온화하고 습윤하며 사계가 분명하고 봄과 가을이 다소 짧으며 연평균 기온은 18.1℃, 연강수량은 1,158.1mm이다.

상하이는 1842년의 아편전쟁 후 체결된 난징조약에 의해 개항되었고 1848년 이래 영국, 프랑스 등의 조계가 형성되었으며,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 극동 최대의 도시로 발전하여 아시아 금융의 중심이 되었다. 중화민국 하에서는 1927년 특별시가 되었고 1930년 5월 직할시로 개칭되었으며 1978년 개혁개방정책에 의하여 외국 자본이 유입하여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고, 1992년 이래 본격적으로 개발된 포동 지구의 발전으로 고도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상하이는 또한 1996년 4월 25~26 기간 중 상하이에서 중국, 러시아, 카지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 국가의 수반이 회원국 간의 변경문제에 관한 협의를 위해 결성한 상하이5국 협력 체제를 모체로 2001년 중국 내 최초의 국제기구이며 또한 중국의 도시 명칭을 지닌 국제조직인 상하이합작조직을 결성하기도 하였다. 상하이시에서는 2010.5.1~10.31 기간 중에 푸둥 및 푸시 지역의 남포대교와 노포대교 사이 빈강지구의 5.28km² 부지에서 'Better City - Better Life'라는 주제로 상하이세계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상하이시는 111개소의 중국역사문화명성의 하나로 당(唐), 송(宋), 원(元), 명(明), 청(淸) 이래의 고적과 특색 있는 원림(園林)과

무수한 혁명 역사의 족적과 유적지가 남아 있으며 20세기 90년대 이래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건축물이 많이 있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구성하고 있으며 관광지로서의 경관을 이루고 있다.

2. 대 만(타이완)



타이완의 총 면적은 3만6천 평방 킬로미터. 섬의 모양은 양쪽 끝이 좁아지는 담배잎모양을 하고 있으며 아시아대륙의 남동부에 위치, 타이완 해협과 중국본토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인구는 약 2천

3백만 명이며, 수도는 타이베이시이다.

태평양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는 타이완은 먼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지각운동으로 인해서 웅대한 산봉우리와 언덕, 평평한 분지, 구불구불 이어지는 해안선 등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이 만들어졌다. 타이완에서는 열대성, 난대성, 온대성 기후가 공존하고 있으며 섬에는 약 만8천 4백 여 개의 야생종이 번식하고 있다.



타이완은客家문화와 타이완섬 및 중국본토의 문화적 요소들이 많은 결합을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색깔의 사회문화

적 현상들이 만들어 졌으며 종교, 건축, 언어, 생활 습관 음식 문화 할 것 없이 하나의 큰 테두리에 안에 공존하며 살아 가고 있다.

특히 타이완 음식 문화는 이러한 문화적 결합과 공존을 대표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국 본토의 여러 지방 음식문화(후난, 광둥, 상하이, 베이징, 쓰촨 등)를 비롯해서, 타이완 각 지방 특성을 살린 독특한 타이완 음식문화를 느낄 수 있다.

Ⅲ

연수내용

1. 상 해(중국)

▣ 황포강 유람선 탑승



황포강은 창강 하류의 지류. 장쑤성 타이호 동안의 호소 지대에서 발원하여 동으로 흘러 상하이로 들어가 우쑹에서 창강과 합류하는 강으로 물은 황토색이며 전장 113km, 폭 300~700m, 평균수심

9m이다. 강남의 수로로서 중시되어 명 이후 이따금 대규모의 준설작업을 하였으며, 청 말엽 상하이 개항으로 우쑹~상하이 간 대형 기선의 항행이 가능해져 공업지대를 연결하는 동맥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하이 10대 관광 명소중의 하나이다.

황포강은 강을 기준으로 포서와 포동으로 나누어진다. 포서지역은 1840년 아편전쟁의 결과로 맺어진 난징조약으로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조계지가 되면서 각국의 건축양식과 독특한 문화를 읽을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되며 현재까지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포동지역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자본주의 최첨단 국제도시로 성장한다. 동방명주탑, 101층 SWFC 등 초고층빌딩이 즐비하다.

이처럼 황포강의 동·서가 상해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보여

주듯 황포강 유람선을 타며 상해의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상적인 야경을 뿜내는 건물을 통해 황포강 유람선은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된 듯 하다.



황포강 유람선을 통해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 전통 뱃길 복원 사업도 단순히 뱃길을 조성한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 무안군의 특색있는 역사와 모습을 보여주는 사업이 되어야 함은 물론 영산강이 흐르는 인근 시·군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상해해양대학교 박물관



상해해양대학교는 1912년 창립된 학교로 상해 황포강변에 위치해 있다. 수산, 해양, 식품, 어업 경제관리 등 학과를 위주로 농학, 이학, 공학 등 다양한 학과가 조화롭게 설치된 종합형 대학이다.

상해해양대학교 내에 있는 해양박물관은 1952년 해양수산 생물들을 전시하던 것을 시작으로 현재의 모습을 이루고 있으며 1036 m²의 면적에 2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40,000점의 해양관련 전

시품과 1,000점 이상의 해양생물
관련 전시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해해양대학교 박물관 관계자와
간단한 현황 설명과 박물관 안내,
그리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 ▶ Q : 박물관의 주요 전시품들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 ▶ A : 현황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40,000여 점의 해양관련 전시품과 1,000점 이상의 해양생물 관련 전시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바다의 팬더로 불리는 18.4m의 중국흰고래는 우리 박물관의 주요 전시품입니다.
- ▶ Q :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홍보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요?
- ▶ A : 우리 박물관이 대학교 박물관인 관계로 대학교 대외 홍보시 함께 홍보하는 편입니다만은 최근에는 상해지역 대학교 박물관들과 함께 『상해고교민족문화 박물관』이라는 책자를 발간해 주변 대학 박물관과 함께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 Q : 관광객이나 학생,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 ▶ A :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실제

살아있는 해양생물을 직접 만져보고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 Q : 기존 박물관 운영이외에 특별히 운영하는 전시기간이 있는가요?

▶ A : 방금전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운영하는 특별 전시기간이 있습니다. 2010년 상해 엑스포 기간에도 특별 전시기간을 마련해 운영하였습니다.



▣ 중국 현대화의 상징 남경로

상하이 관광의 중심지 와이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변화가이며 황포강 연안에서 정안 공원까지 동서로 5km 정도 이어진 길로, 마치 우리나라의 명동과 흡사한 분위기다. 난징루는 중간 지점에서 시짱중루와 교차하는데, 그곳에서 황포강까지의 동쪽 길을 난징둥루, 정안 공원까지의 서쪽 길을 난징시루라 부른다. 난징둥루는 상하이에서 가장 붐비는 지역이다. 거리 주변에는 중후한 모습의 조계 시대 건물이 즐비하고 현대적인 감각의 새로운 건물도 간혹 보인다. 거리 양옆으로 기념품점, 쇼핑센터가 늘어서



추고 있다.

있어 평일에도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이어지는 난징시루는 세련된 호텔이 늘어선 지역이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호텔이 많고 무엇보다 교통이 편리해 여행자가 묵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

우리나라의 명동과 흡사하지만 보행로가 넓어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것에 비해 복잡하지 않으며, 관광객들을 위해 관광용 미니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변화가인 만큼 한국의 주요 기업인 삼성, 신세계 등이 입점해



있으며 다양한 쇼핑 공간 및 식당들이 있어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깔끔하고 정돈된 거리에 비해 상점들의 무질서한 광고간판 등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었다.

2. 대 만

▣ 용산사



용산사는 타이베이 시에서 가장 오래된 절로 1738년 건립되었다. 몇 차례 파괴되었지만 재건을 거듭했고,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은 1957년이다. 용산사는 사찰 건물 지을 때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본당이 소실

되었을 때도 관음보살상은 손실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타이베이 중심에 위치한 용산사는 불교, 도교, 민간신앙이 어우러진 독특한 사원이 특징이다. 시내 중심에 위치해 학생, 직장인, 노인이 수시로 이곳을 찾아 참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찰 본전에는 관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비롯해 사해용왕, 18나한 등이 있다. 후전에는 바다의 여신 '마주', 장사의 신 '관우', 삼신 할머니 등의 신불이 있다. 저녁에는 조명으로 장식된 화려한 모습의 용산사를 볼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용산사를 찾아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올해부터 불교계와의 협약을 통해 개최되는 연꽃축제의 운영에 대한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용산사가 종교를 통한 '도심속의 안식처'가 되고 있듯이 연꽃축제도 종교계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만큼 '축제속의 안식처'가 될 수 있



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쓰린 야시장



쓰린 야시장은 타이베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야시장 가운데 하나이다.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전통 먹을거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많다. 시장 부근에 학교가 많아 학생들이 많이 찾으며, 포장마차 등의 노점상이 많아 가격도 저렴하다. 가구, 의류, 액세서리, 사진현상점, 애완용품점 등이 모여 있어 학생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자주 찾는다.

늦은 저녁이었지만 시장은 현지인들과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상점도 많았지만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다양한 먹을거리였다. 식당가부터 다양한 노점음식까지, 물건의 판매를 넘어서 다양한 먹을거리로 현지인뿐 아니라 관광객까지 방문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무안의 5일 시장들도 다채로운 먹을거리 개발을 통해 외지인들의 발길을 이끌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 잉꺼 도자기박물관



세심함에 관람 내내 도자기를 눈으로 즐기고, 만지면서 감상할 수 있다. 또 가족단위로 방문해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다. 도자기를 만들고 직접 구운 도자기를 기념으로 받을 수 있다.

도자기로만 구성된 전시관은 어찌면 현지인과 생활을 달리한 관광객들에게는 조금 심심할 수 있는 공간일 것이다. 그럼에도 잉꺼 도자기 박물관을 관광객들이 빠짐없이 찾고 있는 것은 감상을 넘어선 체험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군의 미술관, 갯벌센터 등도 관람을 넘어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야류 해양 국립공원

야류는 완리항에 위치하고 있고 북해안쪽으로 뻗은 좁고 긴 모

습을 한 해갑이다. 천백 만년동안 일어나면서 버섯바위, 촛대바위, 생강바위, 호혈, 체스바위, 바다침식 동굴 등과 같은 지형이 점차 형성되었다. 전체 길이 1700m에 이르는 해갑은 타이완에서 가장 명성이 자자한 지질 공원이 되었고 또한 주변의 풍부한 해양 생태, 어촌 풍경 등의 다양한 면모들이 더해져 야류는 교육, 관광 그리고 휴양지 기능을 갖춘 관광 명소가 되었다.



야류 해양 국립공원의 침식작용으로 생긴 바위와 무안의 갯벌은 해안지역의 비슷한 해양관광자원이다. 현지 기온이 25℃를 넘나들어도 갯벌센터와 비교하였을 때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팸플렛. 중국어, 영어, 한국어 등에 이르기까지 관광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 팸플렛이 있었다. 둘째는 탐방로에 시원함을 주는 가로수, 다양한 쉼터를 조성하여 편안하고 여유있는 관람을 유도하였다. 이외에도 수용성이 높은 넓은 주차공간과 주변의 다양한 식당가 등도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야류 해양 국립공원이 시사해 주는 이런 사안들은 앞으로 갯벌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다.



▣ 타이페이 101타워



타이페이 101타워는 대만의 랜드마크이다. 빌딩 모습은 하늘로 뻗어나가는 대나무 위에 꽃잎이 겹겹이 포개진 형상이다. 본래 타이페이 금융기관이 모인 건물이지만 대형 쇼핑몰과 푸드코트, 고급 레스토랑

이 있어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다. 건물에는 8개 마디가 있는데, 이는 중화 문화권에서 부와 번영을 의미하는 숫자 '8'을 염두에 둔 것이다. 타이페이 시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타이페이 101타워는 높이 508m로,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높은 건물이다.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5층부터 89층까지 37초 만에 도달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로 기네스북에 등재했다. 건물의 89층에는 타이페이 시내를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지상 1~5층에는 소고 백화점, 뷰티 플라자, 애버뉴 101 등 다양한 패션·뷰티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이 있다. 또한 레스토랑, 시티 스퀘어, 대형 서점 등 쇼핑과 오락,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복합시설이 있다.

최근 몇 년새 남악신도시에 많은 고층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건물은 주로 사무공간으로 쓰이지만 타이페이 101타워처럼 사무공간과 더불어 쇼핑공간, 그리고 전망대까지 생각하여 지어진다

면 관광객 유치와 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타이페이 101 타워의 전망대는 단순 야경만을 감상하는 곳은 아니란 점은 기억해야 한다. 전망대에는 초고배울 망원경, 타워방문 기념 촬영 서비스, 음료바, 8개국어 멀티미디어 동영상 가이드 기기 및 기념품 판매 서비스와 고층 우체통 등 다양한 시설 등이 있으며 전망대 아래층에는 산호, 액세서리, 대만 기념품 등을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추후 남악에 전망대가 건축된다면 타이페이 101타워의 좋은 선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 국립 고궁박물관



국립 고궁박물관은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에 있는 국립 박물관이다. 1965년 11월 12일 손문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일에 문을 연 이 박물관은 1925년 10월 10일 개관한 북경 고궁 박물관을 모체로 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국보를 지키기 위해 박물관 유물을 남쪽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1936년경 유물은 상하이를 거쳐 남경에 보관되었다. 이후 전세가 악화돼 남로, 중로, 북로로 나뉘

어 후방으로 옮겼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한 뒤 유물들은 남경으로 복귀하지만, 1948년 국민당은 핵심유물들을 다시 대만으로 옮기기로 결정한다. 처음에는 타이중에 보관되다가 1965년 타이페이 와이쑹시에 새 박물관 건물이 완공되면서, '중산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재개관 하였다. 현재 매년 250만 명이 찾아오는 세계 4대 박물관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박물관의 소장품은 중국 송대와 원대, 명대, 청대 등 네 왕조의 궁정유물을 계승한 것으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상당한 규모를 지니고 있다. 은허의 출토품을 포함한 청동기, 옥기, 시대별 서화, 도자기, 자수, 문방구, 문헌 등 모두 75만 점을 소장하고 있다. 유물이 너무 많아 연중 수차례 교체하며 전시하고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내부에서는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사진의 주요 전시품에 대한 자료는 남기지 못했지만, 박물관 운영에 있어 깊은 인상을 받았다. 전시해설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음성안내기가 제공되고 있으며, 정해진 시간에

언어별로 무료 해설가의 안내에 따라 진행되는 전시 해설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었다. 가이드를 대동해 방문한 단체관람객들을 위해 무선 음성안내 장치도 제공되고 있었다. 관람운영에 있어



서는 곳곳에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관람객의 고성이나 사진촬영 등을 금지하게 하는 등 정숙하고 쾌적한 관람 분위기 조성

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오승우 미술관이나 다른 전시시설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충렬사



충렬사는 대만에서 항일 전선과 국민당 정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을 모시기 위해 1969년에 세워졌다. 면적은 약 5만ha이며 중국 북경의 태화전을 본떠 중국 궁전식의 호화로운 건물 모양으로 지어졌다. 정문에서는 매 시간마다 위병 교대식이 펼쳐진다. 청년의 날과 군인의 날에는 기념식이 성대하게 펼쳐진다. 전사자들의 사진이나 동상, 훈장 등을 모아 놓았으나 관광객들에게는 개방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현충원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충렬사는 충렬사 자체보다는 위병교대식으로 더 유명하다. 매 시간마다 거행되는 교대식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몰린다. 특히 교대식은 최소한의 안전요원만이 배치되어



있고 관광객들은 교대식을 하는 위병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며 함께 호흡할 수 있다. 위병교대식을 보기위해 매 시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며 우리의 관내 주요행사에 있어 식전공연 등에 있어 내방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 개발에도 신경써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서문정 거리



중화루 서쪽 주변으로 펼쳐진 변화가다. 타이베이 시에서 최초로 만든 보행자 거리로 일본 통치 시대부터 개발되었다. 상하이에서 건너온 중국인들이 이곳에 오락시설을 많이 지으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시

작했다. 거리 곳곳에 대형 쇼핑센터, 영화관, 노래방, 볼링장 등 오락시설이 즐비하다. 특히 10여 개 영화관이 모여 있어 '영화의 거리'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서문정은 젊은이들로 붐비는 거리로 서울의 명동과 흡사한 모습이다. 길거리에는 버블 티나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 음식점이 늘어서 있다. 휴식, 쇼핑, 먹을거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타이베이 최대의 변화가다.

대만의 명동답게 많은 학생들, 젊은 직장인들이 많았다.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도 다양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양한 외국 연예인들의 광고도 눈에 띄었다. 남악도 서문정 거리처럼 앞으로 더 많은 쇼핑 공간 및 식당가가 형성될 것이다. 물론 남악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에 못지않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외부 방문객이다. 이런 외부 방문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을 충분히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공간과 콘텐츠를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IV

시사점

- 관광객을 배려한 관광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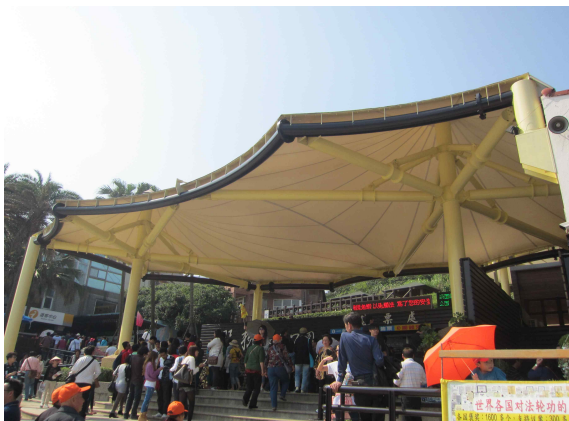
- 대만과 상해의 관광지는 기본적인 관광지에 관광객을 배려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여 관광에 있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관광지를 찾는 장애인의 편리한 통행을 위해 변경해 놓은 보도블록>



<국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언어의 관광안내 팸플렛 비치>



<매표를 위해 대기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설치해 놓은 햇빛 차단막>



<입구에서 관광지에 이르는 이동로에 식재된 가로수와 벤치>

○ 관광 안내 기기의 도입 필요

- 대만의 주요 관광지에는 '멀티미디어 가이드'라는 관광 안내

기기가 있어 관광객에게 대여해주고 관광객 스스로 자유롭게 안내를 받으며 관람을 할 수 있다.

- 물론, 학예사가 있어 안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와 소수의 관광객이 방문 시에는 관광 안내기기를 대여해 줌으로써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타이페이 101타워의 무료 멀티미디어 가이드 대여 장소>



<국립고궁박물관의 무선 음성안내장치 대여 장소>

○ 다양한 먹을거리 개발

- 대만과 상해의 시장과 주요 변화가에는 식당뿐 아니라 노점에서 다양한 먹을거리를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식당에서는 볼 수 없던 다양한 노점 먹을거리는 현지인과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 무안의 5일 시장과 축제 현장에서 무안의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먹을거리를 개발하고 적절한 통제 속에 질서정연한 노점거리를 조성한다면 관광객 유치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순대와 비슷한 길거리 노점 음식>



<노점이 통로의 중앙에 위치,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함>

○ 주요 관광지 기념품 개발

- 국외뿐 아니라 국내 주요 관광지를 견학해 보면 마지막 코스는 관광지 내부의 기념품 가게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 주요관광지에는 기념품 가게가 없다. 물론 기념품도 없다. 연꽃 축제장이나 갯벌센터 등에서 특산품은 판매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기념품 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 하겠다.



<영거 도자기박물관의 기념품 가게. 도자기로 만든 각종 기념품을 판매>



<야류 해양국립공원 내의 기념품 가게. 공원 마스코트 등의 기념품 판매>



<타이페이 101타워의 기념품 가게>



<타이페이 101타워의 마스코트로 만든
가니카 기념품>



<타이페이 101타워의 마스코트를 이용
한 핸드폰 및 열쇠고리 기념품>



<타이페이 101타워를 축소 모형화하여
만든 기념품>